

# “페퍼스의 힘은 광주 팬 응원 열기에서 나온다”



프로배구 여자부 7번째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오는 19일 오후 7시 홈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KGC인삼공사와 창단 첫 경기를 한다고 15일 공개했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제공〉

갓 태어난 신생팀 ... V리그 최약체지만 꾸준히 성장할 것  
오늘 광주 개막전 입장권 600석 5분 만에 완판·SNS 인기



광주에 열리는 프로배구 시대

### 〈3〉 시민과 함께 뛰는 구단

17일 페퍼 스타디움에 케이크 3개가 등장했다. AI페퍼스 선수들은 이날 경기도 용인 '드림파크'에서 훈련을 마치고 광주로 복귀했다. 고향 같은 홈 구장에서 선수들은 풋볼 단 한 개만 쫓힌 케이크에 둘러 모였다. 이제 갓 태어난 '1살' AI페퍼스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작은 생일 파티였다.

19일 역사적인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AI페퍼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지만, AI페퍼스의 힘은 광주시민들의 뜨겁고 한결같은 응원에서 나온다.

AI페퍼스는 사실상 V리그 '최약체'로 꼽힌다. 신생팀인데다 합을 맞출 시간도 부족한 경기력이 떨어질 것이라든가 중론이다. 평균 나이 21세로 경험도 적고, 평균 신장 178cm로 피지컬도 다른 팀에게 밀린다.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로 신생팀 연고지를 확장한 5월 10일부터 개막전까지, AI페퍼스는 단 5개월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가득이나 일정이 촉박한데 마음 놓고 훈련할 틈도 없었다. 창단식과 미디어데이 준비, 백신 접종, '유망주' 박사랑의 부상 등 변수도 많았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신인 6명이 지난 14일 복귀한 터라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5일밖에 안

됐다. 하지만 AI페퍼스는 '젊음'을 무기로 최약체 편견을 깨고자 한다.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젊은 선수들은 경험이 부족해 초반 경기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라운드가 거듭될 수록 좋은 경기력을 보이곤 한다"며 "코트 안 6명이 하는 게임에서 팀워크를 맞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페퍼스의 역량이 크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과 팬들의 이해와 꾸준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페퍼스는 파워나 높이가 좋은 용병 바르가, 아시아게임 때 평균 25득점을 책임져 줬던 하혜진 등 숨은 보석이 많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AI페퍼스는 우승권을 넘볼 만큼 강력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 2-3년만 참고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실 감독이 '미래 지향적인 팀'을 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은 최약체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팀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라는 것.

김 감독은 "경기력이 부족하더라도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다. 햇병아리 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며 "선수들의 각오가 대단하다.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기대에 부응하듯, 광주시민과 배구 팬들의 응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AI페퍼스 개막전 입장권(600석)은 5분도 안 돼 완판됐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구단 SNS는 오픈한 지

## “미래 지향의 팀...광주 팬들에 희망 주겠다”

### 김형실 AI페퍼스 감독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팀으로서 광주시민 뿐 아니라 전체 배구 팬들에게 젊음과 패기, 열정, 희망을 전해 주는 배구단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사진) AI페퍼스 감독은 19일 개막전을 앞두고 경기력, 연습 시간 등 아쉬움을 털어내고 당찬 도전을 해 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개막전을 앞두고 감개무량하고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다. 도쿄올림픽에서 펼쳐진 배구 인기를 이어 배구 활성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광주가 배구 메카 도시였다고 언급했다. 배구 팀은 물론 스타 플레이어도 많았던 만큼 광주의 뜨거운 배구 열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어깨가 더 무거웠다고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은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을 얻었다.

그는 “광주에 올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다. 예컨대 광주시 곳곳에 걸린 응원 플래카드를 보면



그 애정과 기대가 마음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5개월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탄생한, 상당히 이례적인 팀이다. 연습량과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며 “KOVO

컵 대회 등 큰 경기에서 경험을 쌓은 기존 팀과 어느 정도로 접전을 벌일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선수들끼리 믿음을 갖고 한 팀이 되기로 했다. 다소 부족해도 서로 신뢰를 잃지 않고, 잘 안 풀려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등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한국 배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도록 이끌고 싶은 팀이다. 그런 사명감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경기력을 끌어내려 한다. 최선을 넘어 전력,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게 위축돼 있는 시기에 팀을 창단해 준 구단주 장매튜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매튜 대표가 연습 환경, 생활 환경 등 의식주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덕에 우리도 희망을 갖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주일도 안 돼 구독자 2000여명을 넘어섰다.

주장 이한비는 “개막전을 통해 광주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뜻깊으며, 매 경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AI 페퍼스를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AI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페퍼 스타디움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2021-2022시즌 개막전을 연다. 홈 개막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본 및 방역 조치에 따라 20% 관중 입장 제한을 준수해 600개 좌석만 개방하며 스타디움 내 1-3층 중 1층과 2층만 사용한다.

김선빈과 최형우의 방망이에도 관심이 간다. 김선빈은 200번째 2루타를 기다리고 있다. 구자욱·오재일이 199개, 김선빈이 198개로 80번째 200, 2루타 기록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 김선빈은 세 차례 더 홈에 들어오면 통산 81번째 600득점 주인공이 된다.

‘해결사’ 최형우(1389타점)는 1400타점을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11개의 타점을 더하면 이승엽에 이어 KBO리그에서 2번째로 1400타점 고지에 오른다.

이에 앞서 1타점을 더하면 양준혁(1389타점)을 넘어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자의 미니콘서트를 비롯해 구단주 장매튜 대표의사의 개회사, 가수 김태우의 애국가 제창 등이 예정돼 있다. 구단 및 선수 소개 영상도 공개된다.

개막 경기는 KBS N Sports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오후 7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KIA ‘고춧가루 부대’ 활약 이어간다



KIA 타이거즈가 '고춧가루 부대'로 활약을 이어간다.

KIA는 17일 더블헤더 포함 지난주 7연전 일정을 갖고 2승 2무 3패의 성적을 냈다.

결과는 아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박수받을 만한 경기들이었다.

1위 자리까지 노려보고 있는 삼성, '매직 넘버'를 세는 KT 그리고 치열한 4위 싸움 중인 두산이 지난 주 KIA의 상대였다. 삼성과 3연전을 치른 KIA는 2연패 뒤 1승을 기록했다. 2패는 있지만 1점 차 패배 뒤 상대 마무리 오승환에게 44개의 공을 던지게 하는 끈질긴 승부도 펼쳤다.

KT를 상대로는 2-7의 승부를 7-7로 돌리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다.

두산과는 1승 1무 1패. 17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고졸 포수' 권혁경 등 그동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 3-3 무승부를 연출했다.

막판 순위 싸움의 복병으로 떠오른 KIA는 이번 주에도 성적의 키를 쥐었다. 특히 4-5위 싸움 향방을 KIA에 몰아야 한다.

KIA는 19일 SSG, 20일 KT, 21일 한화와 안방에서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그리고 22일에는 창원으로 건너가 NC를 상대한다. 23일 경기가 더블헤더로 진행되면서 NC와는 4연전이 펼쳐진다.

KT·삼성·LG가 1-3위를 놓고 막판 스퍼트 중이고, 4-5위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4위 두산은 3위 LG와 6경기 차이지만 밀에서 추격하는 팀들과의 격차는 좁혀졌다. 5위 SSG와 1경기 차이로 그 뒤에 키움과 NC도 2경기 차에 있다. 2경기 차 내에서 두산, SSG, 키움, NC가 혼돈의 싸움을 하고 있고, KIA가 이번 주 SSG와 NC를 만난다.

두 팀에게 모두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SSG와는 5승 1무 9패, NC와는 2승 11패로 올 시즌 상대 전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특히 NC와는 무려 4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4위 싸움 중인 팀들의 시선이 창원에 쏠릴 전망이다.

KIA 팬들의 시선은 마운드로 향한다.

장현식이 지난 16일 두산전에서 시즌 30번째 홈드루를 기록하면서 KT 주권을 3홀드 차로 따돌렸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만큼 '홀드왕'을 위해 장

현식의 도전이 이어진다. 그리고 홈드가 더해질 때마다 타이거즈 홈드 기록도 새로 작성된다.

‘고졸 2년 차 마무리’ 정해영은 2019년 LG 고우석(35세이브·21세1개월7일)이 기록한 최연소 30세이브에 도전한다.

정해영은 18일 현재 20세 1개월 26일, 앞으로 2개의 세이브를 더하면 고우석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또 선동열, 임창용, 윤석민에 이어 타이거즈에서 3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된다.

김선빈은 200번째 2루타를 기다리고 있다. 구자욱·오재일이 199개, 김선빈이 198개로 80번째 200, 2루타 기록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 김선빈은 세 차례 더 홈에 들어오면 통산 81번째 600득점 주인공이 된다.

‘해결사’ 최형우(1389타점)는 1400타점을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11개의 타점을 더하면 이승엽에 이어 KBO리그에서 2번째로 1400타점 고지에 오른다.

이에 앞서 1타점을 더하면 양준혁(1389타점)을 넘어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 20개 구단 유망주 147명 지명

K리그1 광주FC 금호고 김동화 등 8명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박시언 등 9명

K리그 산하 유망주 소속 유망주 147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K리그 20개 구단의 우선지명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리그1의 광주FC는 금호고 김동화, 강희수, 이승우, 이원준, 이정훈, 정은태, 정종훈, 주민혁 등 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박시언, 박우진, 이건교, 이경현, 이상혁, 이정욱, 이진우, 임선우, 문승민 등 광양제철고 9명을 지명했다.

K리그1에서는 수원FC를 제외한 11개팀이 총 90명을 선택했다.

강원과 전북이 가장 많은 10명을 지명했고, 서울(9명), 광주·수원(8명), 제주(7명), 성남·인천(6명), 대구(4명) 순이었다.

K리그2에서는 충남아산을 제외한 9개팀이 총 57명을 지명했다. 부산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전(각 9명), 경남·김천(각 7명), 부천(6명), 안양(3명), 서울이랜드·안산(각 2명)

순이었다. 프로 직행을 확정된 선수는 올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서울 강성진, 전북 김준홍, 부산 이태민 등과 '2021 K리그 U18 웹 피인업' 최우수 골키퍼에 빛나는 대구 한지을 등 총 22명이다.

한편 K리그 신인선수선발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뉘어 이뤄진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